

이원재 1차관, “건설현장의 정상화 위한 원도급사의 역할 촉구”

- 9일 오후 건설현장 동향 관련 국토부-원도급사 간담회 개최 -

-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3월 9일(목)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일부 건설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집단행동에 따른 건설현장 동향을 점검하고,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원도급사 간담회를 주재하였다.
 -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 확보 방안에 대한 원도급사의 의견수렴과 함께,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시 원도급사가 임대사에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을 당부하였으며,
 - 각 원도급사는 자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운영상황 및 현장에서 공사차질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을 발표·공유하였다.
- 이 차관은 “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청에서도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하면서,
 - 이와 함께, “무리한 작업지시,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시정해 나가야 한다”고 지적하였다.
- 아울러, 이 차관은 “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며, 원도급사는 건설현장을 지휘·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협력업체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서달라”며,
 - “건설현장에서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그 날까지 정부와 건설업계가 힘을 합쳐 끝까지 노력해 나가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
2023. 3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